신속하고 편리한 대출
동일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행정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813 최대단지!
수완신도시 파오레
분양문의 062) 367-9000

제17848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7년 8월 31일 (음력 7월 19일) 금요일

광주 남구 송암동 주민들 돼지 잡던 날

지난 29일 송암동사무소에 모인 광주시 남구 송암동 주민들이 7개월동안 키운 '황금 돼지저금통'과 동전을 보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이웃돕기 연말에만 하는 건 아니죠"

7개월 모은돈 80여만원…어려운 이웃에

지난 29일 광주시 남구 송암동 사무소가 '황금 복돼지' 25마리로 환하게 빛났다.

지난 1월 말 송암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분양한 황금색 돼지저금통이 주민들 품에 안겨 7개월만에 동사무소를 찾은 것이다.

"'황금복돼지해'를 맞아 뜻깊은 일을 하기 위해 돼지저금통을 분양해 동전을 모았는데, 드디어 개봉식을 하게 됐습니다." 류시열 주민자치위원장이 제법 묵직해진 저금통을 들어 보이며 환한 표정으로 저금통 개봉을 선언했다.

당시 주민들에게 나누어진 돼지저금통은 30여개. 저금통은 송암동 통장들과 부녀회장, 자생적 봉사단체인 '효사랑 자원봉사단' 회원 30여명에게 분양됐다. 송암동 사무소에도 대형 돼지 저금통 2개를 비치해 일반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동사무소에 비치된 큼직한 돼지저금통은 민원서류에 필요한 인지를 떼고 남은 잔돈, 용돈을 절약한 어린이들의 고사리손 정성으로 몸집이 하루가 다르게 불어갔다. 동사무소 측은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생명 살리는 소중한 동전', '나누면 행복합니다', '작은 나눔, 큰 사랑' 같은 문구를 만들어 돼지 꼬리에 써붙이기도 했다.

류시열 자치위원장이 첫 돼지저금통의 배를 가르자 10원짜리 동전부터 1만원짜리 지폐까지 '우두둑' 돈이 쏟아져 나왔다. 주민들이 쏟아진 동전을 나눠가는 사이 동사무소는 돼지 키우기 7개월 동안의 사연이 만발하는 '사랑방'으로 변했다.

동전을 찾기위해 식구들을 총동원해 대청소를 하기도 했고, 가게 손님들의 거스름돈을 노린(?) 애교작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병구 송암동장은 민원인들에게 직접 차를 대접하면서 돼지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주민들이 알뜰살뜰 키운 돼지저금통에서 나온 금액은 84만8천400원. 모금된 돈은 결손 가정과 독거노인 등 관내 불우이웃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쓰일 예정이다.

류시열 위원장은 "많지 않은 돈이지만 있는 사람의 8억원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돼지저금통 분양을 더욱 늘려 다음 설 명절에는 가난한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석방 19명 빠르면 내일 귀국

12명 이어 어제 7명 모두 풀려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납치됐던 한국인 인질 중 마지막까지 억류되어 있던 인질 7명이 30일 밤 석방됐다. 이로서 인질들은 지난달 19일 피랍된 이후 43일만에 전원 석방됐다.

〈관련기사 5면〉

이날 석방된 인질들은 김윤영(35)·박혜영(34)·이성은(24)·이영경(22)씨 등 여성 4명과 서경석(27)·송병우(33)·제창희(38)씨 등 남성 3명이다. 이들은 3명과 4명씩 각 2개 그룹으로 나눠 풀려난 뒤 아프간 적신월사에 신병이 인도됐다. 석방된 인질들은 비교적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피랍 한국인 인질 19명 전원이 석방됨에 따라 빠르면 이번 주말안에 이들을 전세기를 이용해 한꺼번에 귀국시킬 계획이다.

이에 앞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대변인 격인 카리 유수프 아마디는 이날 탈레반에 억류돼 있는 나머지 한국인 인질 7명을 이날 오후 4시(한국시간 오후 8시 30분) 이후 전원 석방한다고 밝혔다.

아마디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간접 통화에서 이처럼 말하면서 인질들이 3명과 4명씩 2개 그룹으로 나눠 풀려날 것이라고 말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나머지 인질 7명 석방에 앞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풀려난 12명 외) 나머지 7명도 오늘 오후 석방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카불로 이동해 두바이와 인천을 통해 최대한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 주말에 귀국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애초 29일 석방된 12명을 두바이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오늘 중으로 나머지 7명이 나올 수 있어 내일 19명을 한꺼번에 두바이로 옮길 가능성도 커졌다"며 "따라서 오늘 12명을 두바이로 옮기려던 계획이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아프간 정부의 협조가 미미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아프간 정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최대한 협조해줬다고 평가한다"며 "전 과정에서 아프간 정부와 협의했고 마지막까지 도왔다. 저희 교섭대표가 아프간 측 인사들로부터 '결과가 좋아 환영한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아프간 파병으로 돌리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축한 뒤 "그간 피랍사건이 파병국 국민만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파병국이 아닌 인도 국민도 3번이나 피랍됐다"고 했다. /정후식기자 who@·연합뉴스

피랍자·교회에 구상권 행사키로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피랍자들이 모두 안전하게 귀국하는대로 이번 사태 해결과정에서 소요된 제반비용에 대해 피랍자와 교회측에 '구상권(求償權)'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피랍자들 대부분이 소속된 분당 샘물교회 측이 치료비와 항공료 등 일부 비용을 부담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피랍자들이 안전하게 귀국한 뒤 이번 사태의 본질과 책임소재 등에 대한 문제를 점검해야 하며 특히 정부가 사용한 비용을 정산하는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구상권 = 채무 변제책임이 없는 국가나 개인이 일단 채무를 대신 갚은 뒤 이후 변제책임자에게 변상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광주 광산구 투기지역 내달 해제될 듯

남구도 투기과열지구서 제외…정부 시사

정부가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 등을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지방 주택시장 부양책 마련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광주의 경우 남구와 광산구가 각각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이면서 지역 주택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됐다는 점에서 향후 해제 여부는 물론, 추가 부양책 마련 등을 놓고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30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주택업계 초청 간담회에서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를 조속히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건설업체들의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구에 대해 "지방의 경우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더라도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업계에 도움이 된다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말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치에서 제외된 광주 남구와 대전 등 지방 도시의 추가 해제 문제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건교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재정경제부의 지방 주택투기지역 해제 방침 등과 맞물려 향후 지방 주택경기 회복 여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경부의 경우 최근 두 차례에 걸친 지방 실사를 통해 투기지역 지정·해제와 양도세 완화 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마치는 등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부양책 마련에 나섰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방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지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지방의 아파트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는 질문에 대해 "최근 지방 실태파악을 토대로 9월 중에는 해제 지역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광주 광산구 등 지방 투기지역에 대한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차관은 그러나 "지금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고 유동성도 풍부해 투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완화하거나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우림학원 창학 60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세계로 힘차게 나아가는 대학
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tsc.kr

CATS
'첫눈' 티켓 발매중!!
2007. 8. 7~18 / 광주문예회관
문의 / (062)223-0540 · 1588-0766

"소비자가 뽑은 좋은광고상"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릴 적, 배가 아플 때, 엄마 손은 특효약이었고,
머리 아플 때는 두통약이고 해열제였습니다.
아플 때마다 사랑으로 낫게 하는 엄마의 손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깃든 약손처럼,
사랑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이 됩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
비타민 A, C, E의 보급
아연의 보급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yeopharm.co.kr
고객을 위한 전화(수신자 부담) 080-022-2200

광고심의필 923-1500